

## 스마트폰 가을대전 ON!

### 어떤 스마트폰, 어떻게 어디서 살까

15일 출시 갤럭시8 예약판매 80만대 기대  
새 아이폰 오는 공개...LG V30 출시 21일  
업계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영향 無"



스마트폰 가을 대전의 포문이 열렸다. 삼성전자는 12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갤럭시노트8'의 15일 국내 정식 출시를 알렸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는 21일 'V30'을 출시할 예정이다. 애플도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 새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선수입장을 완료했다. 제품마다 가격은 물론 내세우는 특징도 다른데, 15일부터 시행하는 '선택약정요금 할인을 상향' 등 외부 변수까지 겹쳐 제품 구입에 앞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습을 드러낸 갤럭시노트8은 일명 '움짤'도 간편히 만들 수 있는 'S펜'과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 기술을 탑재한 '듀얼 카메라'가 특징이다. 가격은 64GB 모델이 109만4500원, 256GB는 125만4000원이다. 다소 비싸지만, 일단 예약판매는 성공적이다.

7일 시작한 국내 예약판매는 11일까지 65만대를 넘어섰다. 이전 버전인 '갤럭시노트7'의 2.5배나 되는 수치다. 삼성전자는 예약판매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8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트 사용자들은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다"며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누구보다 갤럭시노트를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약정요금할인 25% 상향, 지원금상한제 일몰 등 변수

갤럭시노트8의 뒤를 잇는 것은 LG전자의

'V30'이다. LG전자는 V30의 국내 예약판매를 14일 시작하고 21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V30은 F1.6 조리개 값의 카메라와 '하이파이 쿼드 DAC'를 적용한 고음질 사운드가 특징이다. 더 큰 강점은 가격이다. 다른 경쟁제품들이 100만원을 넘는 것과 달리 90만원 대를 유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V30의 가격은 64GB 모델은 94만원대, 128GB는 99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주자는 13일 새벽 애플이 발표한 새 아이폰 제품군이다. 아이폰 등장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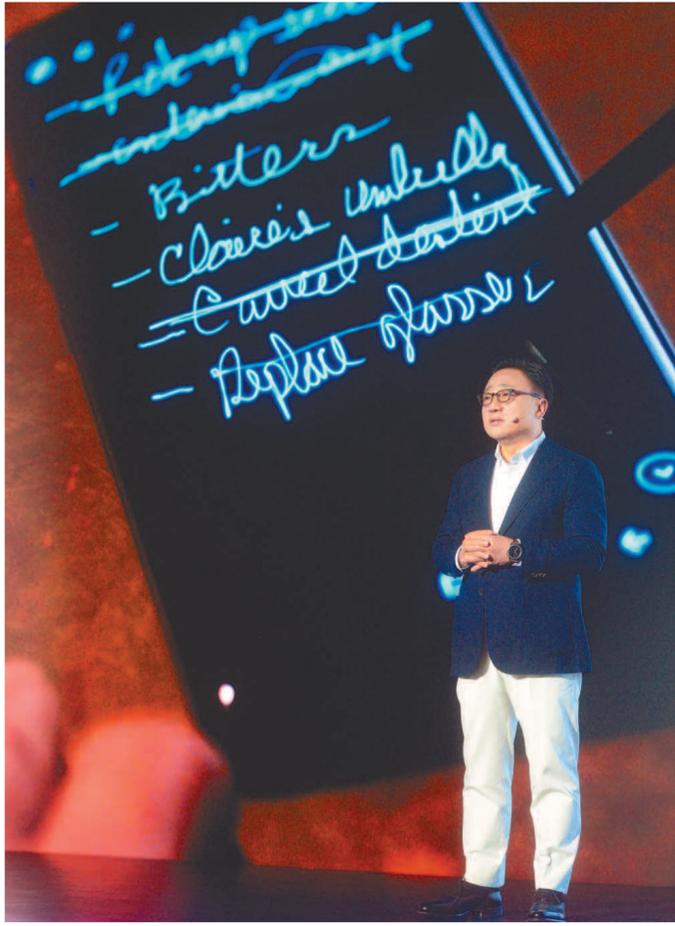
올해 가을 대전에선 제품 선택 전 고려해야 할 외부변수도 있다. 먼저 15일부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약정요금할인이 25%로 높아진다.

갤럭시노트8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시지원금보다 약정요금할인액이 2배 정도 많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예약판매 가입자 대부분이 약정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변수는 이달 말 폐지가 예정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다. 일각에선 추석연휴까지 겹치면서 지원금이 크게 오르는 등 시장이 뜨거워질 것이라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5월의 '지원금 대란'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정부의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혼란을 우려하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선택약정요금할인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업계엔 부담이어서 현재로서는 상한제가 일몰된다고 해서 갑자기 지원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rys@donga.com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갤럭시노트8'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2일

|                  |           |   |         |
|------------------|-----------|---|---------|
| 코스피지수            | 2365.47   | ▲ | +6.39   |
| 코스닥지수            | 660.05    | ▲ | +3.52   |
| 日 낮케이 지수         | 1만9776.62 | ▲ | +230.85 |
| 중 상하이 종합         | 3379.49   | ▲ | +3.07   |
|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 1.75      | ▼ | -0.01   |
| 환율 (원·달러)        | 1127.50   | ▼ | -7.50   |
| 국내금값 (원/그램 g)    | 4만8144.74 | ▼ | -530.01 |

### 오늘의 얼굴

####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 주식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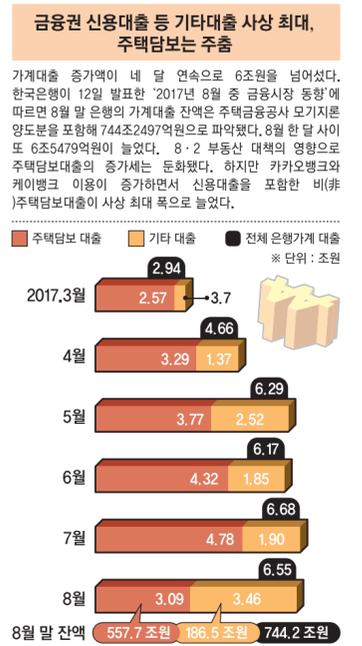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12일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한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등 주요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재계 일부에서는 롯데 그룹의 지주사 전환 결정으로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신 전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정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SDJ코퍼레이션은 "이번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 매각은 경영권과 관련 사안과는 별개로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 비즈 TALK TALK

- "건설이 곧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대한 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가 12일 발표한 'SOC 예산 정상화' 대국민 호소문에서)
- "노동운동도 30여년이 지나면서 투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현실인식이 생기고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12일 박용만 대상상의 회장 등 재계 대표와의 첫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 "현재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전혀 없다." (백은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과 관련해 민간과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급격한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며)

### 데이터 경제



### 김정아 박사 등 5명, '아모레퍼시픽 차세대연구자상' 수상

아모레퍼시픽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3회 아모레퍼시픽 차세대연구자상' 시상식(사진)을 열었다. 2015년 제정한 이 상은 2019년까지 매년 5명의 국내 분자생물학 및 세포생물학 분야 연구자를 선발해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국과학기술원 나노과학기술대학원 김정아 박사, 미국 예일대학교 메디컬스쿨 오지은 박사,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이현철 박사,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정현빈 박

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인지과학전공 조봉기 박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는 아모레퍼시픽 차세대연구자 학회 세션에서 연구업적에 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심옥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연구경영실장은 "국내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자분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연구 개발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옥 기자 jiy@donga.com

경제현장.jpg "실을 재현 3D피규어 드려요"

모델들이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에서 3D프린터로 실물을 재현한 3D피규어를 소개하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은 15~24일 '개점 11주년 고객 사은행사'를 연다. 가을 시즌을 맞아 패션·의류와 아웃도어, 웨딩, 가구 등을 특가 할인 판매한다. 또 11주년을 기념, 11명을 추천해 3D프린터로 실물을 재현한 3D피규어를 제작해준다.

정정옥 기자·사진제공 | 아이파크백화점

## "28년 후엔 10가구 중 7가구가 1~2인 가구"

(2045년)

건설산업연구원 분석...1인 가구 36.3% 소형주택 인기 지속, 전·월세 수요 증가



2045년이면 독신과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슈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이 통계청 '2015~2045년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45년에 1~2인 가구는 71.3%(1589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가구 36.3%(809만8000명), 2인 가구 35.0%(780만명)에 달한다.

1~2인 가구 비중은 2015년 53.3%(1013만4000명)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55.4%(1082만

3000명)까지 늘었다. 30년 후에 약 20% 포인트 이상 커지는 셈이다.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매년 줄어 2015년 25.2%(480만명)에서 올해 23.2%로 줄었다. 2045년에는 불과 9.0%(200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구수 증가와 달리 가구당 평균 구성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45년 전국 총 가구 수는 2015년(1901만 가구) 대비 약 330만 증가한 2231만 가구로 추정했다. 하지만 평균 가구원 수는 2015년 2.53명에서 2045년 2.10명으로 줄어듦으로 예상된다. 세종과 울산, 경기, 인천, 서울 등은 가구당 구성원이 2.2명 내외이고, 특히 충북 및 경북, 전남, 강원 등은 2명도 안되는 1.89~1.96명으로 예측했다.

특이한 점은 서울이 2023년을 기점으로 가

구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연은 "서울은 집값이 높게 형성됐고 인구밀도도 높아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2023년을 기점으로 서울은 줄고 인근 수도권 가구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향후 소형주택 수요와 전·월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연 측은 "지금도 중·대형보다 일부 소형주택이 평당 매매가가 높고 수요도 많은 편인데, 이런 추세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전·월세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옥 기자 jiy@donga.com

### 전통시장 글로벌기자단 공식활동 돌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7일 '전통시장 글로벌기자단 및 소상공인 블로그기자단'의 통합발대식(사진)을 진행했다. 내국인 35명과 재한 외국인 16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기자단 홍보활동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중국·일본·캐나다·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재한 외국인 기자단은 한국시장을 취재해 자국의 소셜네트워크(SNS)에도 올릴 예정이다. 소상공인 블로그기자단은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전국에서 20명이 선발됐다. 풍부한 볼거리 경험을 토대로 소상공인 일상의 면면을 온라인과 SNS를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정정옥 기자

편집 | 이수진 기자